

# 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문의 :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063-280-7141)

▪담당자 : 지역개발연구부 이성재 연구위원  
(063-280-7153, 010-2630-3248)

보도시점 : 2021년 2월 25일(목)부터

## 통근통학으로 알아보는 전라북도 생활권 이야기

- 인구감소시대, 전북의 내부광역화를 위한 생활권 중요
- 전주시와 완주군은 도내 시군간 전체 통근·통학량의 29%로 생활권 강화
- 도내 통근·통학량은 새만금 인접 지역과 완주군·동부권을 중심으로 확대

- 최근 시도 단위 초광역 도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북의 내부 광역화를 위해 중요한 생활권에 대한 분석 내용이 발표되었다.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5일 『통근·통학으로 알아보는 전라북도 생활권 이야기』라는 이슈브리핑(242호)을 통해 도내 시군 간 통근·통학량을 기초로 지역 내외 통근·통학량, 주간인구지수, 지역연계지수 등을 분석하였다.
- 먼저 전주시-완주군의 경우 통근·통학량이 35,676명( '15년 기준)으로 가장 많고, '95년 20.9% 대비 8.1%p가 증가하여 증가 비율 또한 가장 높아 두 지역 간 생활권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다음으로 전주시-김제시, 군산시-익산시, 익산시-완주군 등 중추도시권 내 통근·통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부권 지역은 전주시 외에도 완주군과의 통근·통학량 증가하고, 새만금과 인접한 군

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중심으로 3개 시군 간 통근·통학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반면, 도외 타 시군으로의 통근·통학 비율은 무주군이 65.3%로 가장 높고, 순창군 58.3%, 남원시 45.2%, 고창군 42.2%, 군산시 32.4% 순으로 상대적으로 도외 지역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동부권으로 분석되었다.
- 상주인구 대비 주간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주간인구지수는 완주군이 113.8로 가장 높고, 임실군, 진안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 통근·통학 유출입 대비 두 지역 간 통근·통학량 비율을 의미하는 지역연계지수는 전주시-완주군, 군산시-익산시, 전주시-익산시, 전주시-김제시, 정읍시-고창군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지역연계지수를 기반으로 한 도내 생활권이 강하게 형성된 지역의 거점은 크게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등이라고 분석했다.
- 전주시의 1차 생활권은 완주군, 2차 권역은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이며, 정읍시의 1차 생활권은 고창군과 부안군, 2차 권역은 김제시까지 포함되고, 남원시는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과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제시했다.
- 통근·통학량을 통해 살펴본 도내 생활권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전주시와 도내 접경지역인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등까지 통근·통학량 증가로 전주 중심의 광역화 진행되고 있으며,
- 둘째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근·통학량 비중과 변화량 또한 가장 많이 증가하여 두 지역 간 생활권이 강화되고 있으며, 셋째, 새만금과 인

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김제시를 중심으로 지역 간 통근·통학량 확대, 넷째, 동부권은 최근들어 완주군을 중심으로 통근통학량 및 지역연계지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 전북을 둘러싼 인접 시도에서 초광역 대도시 형성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을 종속변수에서 주체적으로 발전하는 독립변수로 발전시켜 작지만 강한 독자권역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을 기반으로 내부 광역화에 작업에 속도를 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